

# 레미콘산업동향

(한국레미콘공업협회 조사과)

## 1. 1996년 2/4분기 건설경제 동향

### 1) 개 황

한국은행이 발표한 『1996년 2/4분기 국내총생산』에 의하면 2/4분기 중 국내총생산(실질 GDP)은 고정투자가 부진한 반면 수출에서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물량면에서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고 연간소비도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여 6.7%(상반기중 7.3%)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정투자는 설비투자과 건설투자의 부진을 반영, 성장세가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은 표.1에서와 같이 부문별로는 공공부문건설이 공중별로는 토목공사가 호조를 보여 상반기 건설경기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나 민간부문건설과 건축공사가 상대적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여 1/4분기 건설업 성장을 9.6%에 미치지 못하는 4.8%증가에 머물렀다.

이중 민간건설에서는 인천국제공항, 경부고속철도, 중앙고속도로 확장공사등 사회 간접자본에 대한 건설이 1/4분기에 이어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한편, 미분양 아파트는 1/4분기중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으나 3월 이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 못하여 아파트등 주거용건물 건설이 감소하였고 상가등 비주거용건물 건설도 감소세를 유지하여 전체적으로 약 2.3%의 완만한 성장에 그쳤다.

공공건설은 서울지하철 일부 구간 완공의 영향으로 전체적인 지하철 건설이 부진하였으나 국

(표 1) 건설업의 성장률 추이(전년동기 대비)

(단위 : %)

| 구 분  | 1995년 |      |      |      |      | 1996년 |      |
|------|-------|------|------|------|------|-------|------|
|      | 1/4   | 2/4  | 3/4  | 4/4  | 연간   | 1/4   | 2/4  |
| 건설업  | 7.7   | 9.0  | 10.9 | 10.9 | 9.8  | 9.6   | 4.8  |
| 민간건설 | 7.2   | 8.7  | 13.6 | 12.8 | 10.8 | 7.8   | 2.3  |
| 주거용  | -0.6  | 9.4  | 15.0 | 13.0 | 9.2  | 6.9   | -1.8 |
| 비주거용 | 13.3  | 14.0 | 17.5 | 8.5  | 13.4 | 4.7   | -3.5 |
| 토목건설 | 20.5  | 1.6  | 11.0 | 20.7 | 13.2 | 18.8  | 18.1 |
| 공공건설 | 12.1  | 10.8 | 2.7  | 6.2  | 7.0  | 20.6  | 10.9 |

자료 : 한국은행 '1996년 2/4분기 국내총생산' 참조.

도, 지방도등 도로건설과 상하수도건설등이 정부의 투자 확대로 활기를 띠어 10.9% 성장하였다.

96년 상반기중 건설경기의 특징은 부문별로는 공공부문이 공정별로는 토목공사가 각각 민간부문과 건축공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여 건설경기를 주도 하였다는 점이다.

### 2) 건축허가 면적

건설교통부가 발표한『96년 상반기 건축허가 면적 동향』에 의하면 이 기간중 전국에서 허가된 건축허가면적의 누계는 총 5천451만6천m<sup>2</sup>로 전년 같은기간의 6천258만8천m<sup>2</sup>보다 12.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표.2 참조]

상반기중 건축허가면적이 전년에 비해 크게 감소한 이유는 전반적인 건축경기의 침체와 미분양 주택의 영향으로 주택건설물량의 감소가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용도별로 살펴보면 좀처럼 회복기미가 보이지

[표 2] 건축허가면적 현황

(단위 : 천m<sup>2</sup>, %)

| 구분<br>기간 | 합 계    |       | 주거용    |       | 상업용    |       | 공업용   |       | 문교<br>기타용 |       |
|----------|--------|-------|--------|-------|--------|-------|-------|-------|-----------|-------|
|          | 합 계    | 전년비   | 주거용    | 전년비   | 상업용    | 전년비   | 공업용   | 전년비   | 문교<br>기타용 | 전년비   |
| 95.상반    | 62,588 | 27.3  | 32,650 | 37.9  | 16,590 | 19.5  | 7,426 | 21.9  | 5,992     | 5.7   |
| 기 1월     | 5,839  | 8.9   | 2,788  | 38.0  | 1,685  | -11.1 | 766   | 8.8   | 600       | -19.2 |
| 2월       | 7,497  | 17.8  | 3,938  | 25.2  | 2,153  | 22.5  | 804   | 9.2   | 602       | -26.9 |
| 3월       | 12,197 | 19.0  | 7,015  | 41.9  | 3,006  | 5.5   | 1,420 | -5.8  | 757       | -20.3 |
| 4월       | 11,391 | 45.2  | 5,529  | 57.0  | 2,826  | 14.6  | 1,581 | 73.9  | 1,456     | 53.6  |
| 5월       | 12,716 | 52.3  | 5,965  | 60.2  | 4,537  | 80.9  | 1,181 | 17.3  | 1,032     | -6.9  |
| 6월       | 12,947 | 17.7  | 7,415  | 17.2  | 2,383  | -1.1  | 1,674 | 36.0  | 1,475     | 43.2  |
| 96.상반    | 54,516 | -12.9 | 29,749 | -8.9  | 13,315 | -19.7 | 5,829 | -21.5 | 5,621     | -5.1  |
| 기 1월     | 6,809  | 16.6  | 3,283  | 17.8  | 2,004  | 18.9  | 942   | 23.0  | 580       | -3.3  |
| 2월       | 7,194  | -4.0  | 3,726  | -5.4  | 1,790  | -16.9 | 946   | 17.7  | 732       | 21.6  |
| 3월       | 9,652  | -20.9 | 5,587  | -20.4 | 2,141  | -28.8 | 797   | -43.9 | 1,127     | 48.9  |
| 4월       | 10,134 | -11.0 | 5,469  | -1.1  | 2,568  | -9.1  | 1,113 | -29.6 | 983       | -32.5 |
| 5월       | 10,322 | -18.8 | 5,465  | -8.4  | 2,643  | -41.7 | 1,135 | -3.9  | 1,079     | 4.6   |
| 6월       | 10,405 | -19.6 | 6,219  | -16.1 | 2,169  | -9.0  | 896   | -46.5 | 1,120     | -24.1 |

자 료 : 건설교통부 도시주택국 건축과

않고 있는 주거용의 경우 6월말까지 모두 2천 974만9천m<sup>2</sup>가 허가되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의 3천265만m<sup>2</sup> 비해 8.9%가 감소한 것으로서, 이처럼 주거용건축물이 크게 감소한 것은 미분양 아파트의 적체가 정부의 각종 부양책과 업체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공장, 창고등 공업용과 상업용 건축허가면적은 경기의 하강으로 기업들이 상업용건물의 신축과 시설투자를 기피하고 있어 공업용의 경우 전년동기 7,426천m<sup>2</sup>보다 21.5%감소한 5,829천m<sup>2</sup>가 허가되었으며 상업용은 96년상반기에 13,315천m<sup>2</sup>가 허가되어 전년 16,590천m<sup>2</sup>보다 19.7%감소하는 부진을 보였다.

### 3) 건설계약액

건설협회에 의하면 '96년 상반기중 국내건설공사계약액은 표.3에서 보는바와 같이 전년같은기간보다 24.6%증가한 30조1,481억원을 기록하여 올해 예상증가율인 12.4%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주자별 계약실적을 살펴보면, 먼저 공공부문에서 경기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공사조기발주와 4월 총선에 따른 선심성 공사물량등 항만, 철도, 상하수도, 토지조성 등의 발주증가에 힘입어 1조7,880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59.7%가 증가하는 괄목할 만한 성장율을 기록하였다.

공공부문발주 건설계약액을 공종별로 보면 토목은 도로, 교량, 발전, 토지조성 등 SOC관련공사의 발주증가로 전년동기대비 78.9%의 높은 증가를 유지하였고 건축도 꾸준히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21.7%증가 하였다.

민간부문건설계약액은 18조1,916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9%증가에 그쳤다. 이를 공종별로 살펴보면 토목이 전년동기 대비 70.7%의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었으나 건축은 주거용건축이 주택경기의 둔화로 좀처럼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데다, 기업들이 사옥, 상가등 비주거용건축의 신축을 기피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전년동기대비 4.1%성장에 그친것으로 나타났다.

[표 3] '96년도 건설계약액 현황  
(단위: 억원, %)

|     | A: '96년 상반기 | B: '95년 상반기 | 전년동기대비<br>증가율(A/B) |
|-----|-------------|-------------|--------------------|
| 합 계 | 301,481     | 241,876     | 24.6               |
| 토 목 | 109,580     | 61,809      | 77.3               |
| 건축  | 191,901     | 180,067     | 6.6                |
| 공 공 | 119,565     | 74,854      | 59.7               |
| 토 목 | 89,089      | 49,804      | 78.9               |
| 건축  | 30,476      | 25,050      | 21.7               |
| 민 간 | 181,916     | 167,022     | 8.9                |
| 토 목 | 20,491      | 12,005      | 70.7               |
| 건축  | 161,425     | 155,017     | 4.1                |

자료: 대한건설협회, 상위 200개사 실적은 통계청 수치를 이용

[표 4] 전국 레미콘 산업업체 현황  
(1996년 6월30일 기준)

| 구 분<br>지 역 | 업체수 | 공장수 | 생산능력(B/P) |                    | 믹서트럭보<br>유대수(대) |
|------------|-----|-----|-----------|--------------------|-----------------|
|            |     |     | 기수        | 천m <sup>3</sup> /년 |                 |
| 서울·경인      | 106 | 151 | 236       | 83,760             | 7,278           |
| 강 원        | 60  | 67  | 72        | 18,100             | 1,036           |
| 충 북        | 41  | 42  | 50        | 13,660             | 887             |
| 대전·충남      | 67  | 79  | 102       | 30,438             | 1,837           |
| 전 북        | 38  | 43  | 57        | 16,320             | 935             |
| 광주·전남      | 59  | 73  | 89        | 25,540             | 1,699           |
| 대구·부산      | 83  | 97  | 126       | 37,188             | 2,133           |
| 부산·경남      | 92  | 103 | 144       | 43,070             | 3,062           |
| 제주         | 13  | 13  | 17        | 4,440              | 268             |
| 합 계        | 523 | 668 | 893       | 273,476            | 19,135          |

주) 1. 전국 업체수는 지역 중복을 피한 수치임.  
2. 연간 생산능력은 년 250일, 1일 8시간 가동 기준임

## 2. 1996년 상반기 레미콘 수급동향

1996년도 상반기중 레미콘은 표.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523개 업체 668개 공장에서 5천671만 6천m<sup>3</sup>을 기록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 5천488만9천m<sup>3</sup>보다 3.3%의 소폭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역이 수요의 감소 혹은 정체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상반기중 정부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총선이라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계속 누적되고 있는 미분양주택의 영향으로 주택경기가 침체 되었고 경제전반에 걸친 불경기로 기업이 대규모의 설비투자를 기피하는 등 건설경기가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 못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상반기중 레미콘출하실적을 살펴볼 때[표.5 참조] 3월이후 성수기를 맞이하여 5월까지 매월 1천200만m<sup>3</sup>를 넘는 높은 수요를 나타내었으나 5월이후 시멘트부족에 따른 레미콘의 수급차질로 6월중 1천28만7천m<sup>3</sup>를 생산하여 전년 같은 기간의 1천168만m<sup>3</sup>에 비해 11.93%감소하였다.

수요별로 레미콘생산량을 비교하여 보면 민수 부문이 전년동기 45,671,732m<sup>3</sup>대비 4.46% 증가한 47,708,517m<sup>3</sup>을 출하하였는데 반하여 관수는 9,008,213m<sup>3</sup>를 생산하는데 그쳐 전년동기 9,217,588m<sup>3</sup>보다 2.27%감소하였다. 이는 사회

간접자본시설공사에서 정부주도의 토목공사가 활발하게 진행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서의 발주형태가 지속적으로 턴키 형태로 변환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며 이러한 관수물량의 지속적인 감소현상은 97년 건설시장의 개방을 기점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적으로 레미콘생산을 살펴보면 대전·충남 지역이 택지개발, 하수종말처리장, 정수시설공사 등 과 같은 공공공사를 중심으로 관급 물량이 꾸준히 증가하여 전년 같은 기간의 4,898,828m<sup>3</sup>에 비해 6.89%증가한 5,236,465m<sup>3</sup>를 기록하여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었으며, 106개 업체 151개공장이 가동중인 서울·경인지역은 일부 지하철공사의 완공으로 지하철 물량이 감소하였고 주요 공공공사가 턴키베이스로 전환됨에 따라 관수물량이 전년동기 2,706,879m<sup>3</sup>대비 17.4%가 감소한 2,235,883m<sup>3</sup>를 기록하는 부진을 나타내었으나 수원·원통지구와 부천·김포지역의 아파트 공사가 활기를 띠어 전체적으로 21,404,709m<sup>3</sup>를 기록하여 전년 같은기간의 20,532,865m<sup>3</sup> 보다 4.25%증가하였다.

전북지역은 농지정리와 95년수해복구사업의 마무리공사, 경주-홍덕간 도로포장공사등 공공건설공사가 전체 건설경기를 주도하고 있으나 그

(표5) 96년 상반기 지역별 레미콘 출하실적  
(단위 : m<sup>3</sup>, %)

| 지역    | 수요별 | 1996       | 1995       | 증감율    |
|-------|-----|------------|------------|--------|
| 서울·경인 | 민수  | 19,168,826 | 17,825,986 | 7.53   |
|       | 관수  | 2,235,883  | 2,706,879  | -17.40 |
|       | 계   | 21,404,709 | 20,532,865 | 4.25   |
| 강원    | 민수  | 1,928,564  | 1,772,858  | 8.78   |
|       | 관수  | 553,824    | 569,757    | -2.80  |
|       | 계   | 2,482,388  | 2,342,615  | 5.97   |
| 충북    | 민수  | 2,143,620  | 2,135,936  | 0.36   |
|       | 관수  | 403,530    | 375,549    | 7.45   |
|       | 계   | 2,547,150  | 2,511,485  | 1.42   |
| 대전·충남 | 민수  | 4,430,907  | 4,181,116  | 5.97   |
|       | 관수  | 805,558    | 717,712    | 12.24  |
|       | 계   | 5,236,465  | 4,898,828  | 6.89   |
| 전북    | 민수  | 1,957,959  | 2,066,971  | -5.27  |
|       | 관수  | 673,058    | 518,964    | 29.69  |
|       | 계   | 2,631,017  | 2,585,935  | 1.74   |
| 광주·전남 | 민수  | 4,212,582  | 3,986,752  | 5.66   |
|       | 관수  | 943,173    | 1,005,439  | -6.19  |
|       | 계   | 5,155,755  | 4,992,191  | 3.28   |
| 대구·경북 | 민수  | 5,684,626  | 5,771,623  | -1.51  |
|       | 관수  | 1,567,806  | 1,560,849  | 0.45   |
|       | 계   | 7,252,432  | 7,332,472  | -1.09  |
| 부산·경남 | 민수  | 7,691,483  | 7,420,186  | 3.66   |
|       | 관수  | 1,639,247  | 1,525,914  | 7.43   |
|       | 계   | 9,330,730  | 8,946,100  | 4.30   |
| 제주    | 민수  | 489,950    | 510,304    | -3.99  |
|       | 관수  | 186,134    | 236,525    | -21.30 |
|       | 계   | 676,084    | 746,829    | -9.47  |
| 합계    | 민수  | 47,708,517 | 45,671,732 | 4.46   |
|       | 관수  | 9,008,213  | 9,217,588  | -2.27  |
|       | 계   | 56,716,730 | 54,889,320 | 3.33   |

외는 특별히 경기를 주도해갈 호재가 없고 미분양주택적체의 영향으로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주거용건축이 부진을 보인데다 6월들어 레미콘 원자재인 시멘트도 수요물량의 60-70%내외로 공급되어 전체적으로 전년동기 2,585,935m<sup>3</sup>대비 1.74%늘어난 2,631,017m<sup>3</sup>를 기록하였다.

또한 대구·경북지역도 지하철 1호선공사의 마무리로 레미콘물량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민간

건설경기의 침체로 민수물량도 예년수준을 밑돌고 있다. 5월이후 각 시멘트사의 시멘트생산부족 및 공급부족으로 수요대비 시멘트공급수준이 평균50-60%를 유지하였고 일부내륙지역은 수요대비 공급수준이 30%대로 떨어지는 등 원자재 수급에 차질을 빚음으로써 전년동기 7,332,472m<sup>3</sup>대비 1.09%감소한 7,252,432m<sup>3</sup>를 생산하였다. 충북지역은 4월 이후 건설경기가 다소 회복세를 보였으나 기타 민간공사의 부진으로 예년과 비슷한 1.42%가 증가(2,547,150m<sup>3</sup>) 하였고 강원지역은 5.97%(2,482,388m<sup>3</sup>), 부산·경남지역은 4.30%(9,330,730m<sup>3</sup>)증가율을 보인 반면 제주도는 전년동기 746,829m<sup>3</sup>보다 9.47%나 감소한 676,084m<sup>3</sup>를 기록하여 레미콘생산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상반기중 레미콘산업의 특징은 주요 원자재인 시멘트가 자연환경훼손문제로 야기된 인허가 과정에서 생산업체와 허가관청과의 갈등에 의해 생산차질을 가져왔고 수입단가의 상승요인으로 인한수입의 어려움으로 4월 이후 심각한 공급난을 겪음으로써 레미콘수급에 큰 장애요소가 되었다는데 있다.

### 3. 1996년도 하반기 건설경제 전망

#### 1) 정부정책기조 및 개황

재정경제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수출 및 설비투자의 증가세둔화와 큰 폭의 재고증가 등에 비추어 하반기 중에는 경기하강국면이 더욱 뚜렷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나 민간소비와 건설투자등 내수의 꾸준한 성장으로 7%수준의 성장은 유지할 것으로 보여 과거와 같은 급격한 경기의 하강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하반기경제전망'에 의하면 금년중 GDP성장률은 지난해 9.0%보다 낮은 7.2%내외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반기별로는 상반기중 7.3%에서 하반기에는 7.0%수준으로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수요부문별로보면 수출과 설비투자의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소비, 건설투자등 내수부문의 성장기여율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건설투자는 사회 간접자본투자가 호조를 보이고 주택건설도 다소 회복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7-8%수준의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재정경제원에서 발표한 '96년 하반기 경제운영방향'에서는 하반기의 소비자물가는 3/4분기중에 교육세부과, 지방공공요금조정 등의 영향으로 4.5%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최근의 경제동향 및 경제운영방향'에 의하면 향후 경제운영의 방향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통화를 신축적으로 운용하되, 물가안정과 경상수지 개선을 위해 안정운영기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우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SOC의 확충, 토지, 건설, 금융, 외환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친 경제행정규제의 축소, 비효율적인 에너지이용구조 개선을 강화 하기로 하였다.

## 2) 하반기 건설투자전망

국토개발원이 발표한 하반기 전망에 의하면 1996년도 건설투자는 8.0%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중 하반기 건설투자는 전반적인 거시경제의 둔화와 설비투자의 부진 등으로 인하여 전년동기대비 7.1%증가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이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토목부문은 공공공사발주 증대 및 대규모 공사의 본격 추진 등 사회간접자본투자의 확대로 하반기에도 15.9%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민간부문은 표준건축비인상

등으로 미분양주택적체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이나 일반경기의 침체로 공업용과 상업용 건물건축이 감소하고 있는 데다 부동산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어 하반기에도 역시 회복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건설협회가 발표한 '96년 하반기전망'에 의하면 표.7과 같이 하반기중 국내건설총계약액은 전년동기 대비 7.5%증가한 38조4,37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발주자별로 살펴보면 공공부문에서 정부의 주도로 대형공사들이 상반기에 조기발주에 의해 하반기에는 공사물량이 위축되어 전년동기대비 6.2%증가에 그친 17조 9,00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공종별로 살펴보면 토목은 전년에 대형사업들이 하반기에 집중되는 호조를 보인 상대적인 영향과 공사물량의 감소로 전년같은 기간보다 16.2%감소할 전망이다. 그러나 건축은 지방의 소규모 관광단지 및 유통단지의 신축과 문화시설 그리고 학교시설의 신·증축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 전년동기대비 59.2%증가하는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96년 하반기 민간부문 계약액은 총 20조5,330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8.8%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종별로는 토목이 기업의 설비투자 부진으로 전년동기대비 16.2%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건축은 전년동기대비 11.7%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건축이 상반기중 부진을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낮은 증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는 아파트등 주거용건축이 좀처럼 회복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96년 하반기 건설경기는 부분적인 호조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변수가 존재하지 않는 한 총량지표상의 계약액 증가세와는 달리 전체적인 경기의 위축과 건업체들의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업체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택은행이 발표한 아파트분양실적에 따르면 96년 7월말현재 주택건설지정업체의 아파

(표6) 건설투자동향 및 전망

(단위 : %)

| 구 분   | 1995년 | 1996년 |      |      |      | 년간   |
|-------|-------|-------|------|------|------|------|
|       | 년간    | 1/4   | 2/4  | 상반기  | 하반기  |      |
| 경제성장률 | 9.0   | 7.9   | -    | -    | -    | 7.5  |
| 건설투자  | 9.9   | 10.0  | 8.6  | 9.2  | 7.1  | 8.0  |
| 주거용   | 8.5   | 7.1   | -1.3 | 2.6  | -1.4 | 0.6  |
| 비주거용  | 13.0  | 4.4   | 3.8  | 4.1  | 2.1  | 3.0  |
| 토목투자  | 9.0   | 20.9  | 21.3 | 21.1 | 15.9 | 17.9 |

자료) 국토개발원

[표7] 96년도 건설계약액 개황

(단위 : 억원, %)

| 구 분 | 1995년   |         | 1996년(E) |      |         |       |
|-----|---------|---------|----------|------|---------|-------|
|     | 상반기     | 하반기     | 상반기      | 하반기  | 상반기     | 하반기   |
| 합 계 | 241,876 | 357,409 | 289,520  | 19.7 | 384,370 | 7.5   |
| 토 목 | 61,809  | 143,660 | 98,750   | 59.8 | 124,370 | -13.4 |
| 건 축 | 190,067 | 213,749 | 190,770  | 5.9  | 260,000 | 21.6  |
| 공 공 | 74,854  | 168,654 | 107,880  | 44.1 | 179,040 | 6.2   |
| 토 목 | 49,804  | 123,902 | 82,420   | 65.5 | 107,810 | -16.2 |
| 건 축 | 25,050  | 44,752  | 25,460   | 1.6  | 71,230  | 59.2  |
| 민 간 | 167,022 | 188,755 | 181,640  | 8.8  | 205,330 | 8.8   |
| 토 목 | 12,005  | 19,758  | 16,330   | 36.0 | 16,560  | -16.2 |
| 건 축 | 155,017 | 168,997 | 165,310  | 6.6  | 188,770 | 11.7  |

자료) 대한건설협회

트분양율은 56.5%로 전월에 비해 5.2%증가하였다. 또한 7월말현재 전국의 미분양아파트는 127,537호로서 민간부문이 80,284세대로 1.9%감소하였으며, 공공부문은 47,253세대로 전월에 비해 2.9%감소하였다. 7월말 들어 미분양주택이 소폭 감소한 것은 아파트 수요증가로 분양율이 증가된 것이 아니라 미분양적체의 지속, 비수기도래 등으로 주택업체들의 분양물량이 감소한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미분양주택은 장기적체에 따른 주택건설의 위축을 막기 위하여 정부가 주택건설 및 공급과 관련한 각종규제를 완화하는 등 미분양주택의 해소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주택건설의 위축으로 신규분양물량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여 당분간 미분양주택이 계속 줄어들 것으로 보이나 가을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주택업체의 분양도 늘어나고 수요도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여 미분양은 현재의 수준에서 소폭 변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 4. 1996년 하반기 및 1997년 레미콘 수요전망

1996년도 하반기의 레미콘 수요는 약 6천201만m<sup>3</sup>에 달하여 전년대비 3.6%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반기의 레미콘의 수요가 상반기보다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것은 상반기에 시멘트수급의 어려움으로 지체되었던 공사물량이 이월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연간으로 볼 때는 1억1천873만m<sup>3</sup>를 기록하여 전년대비 3.4%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시멘트, 골재등 원자재 수급에 따라 변수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본다.

[표8] 미분양주택현황

(단위 : 호, %)

| 구 분  | 96.1              | 96.2              | 96.3              | 96.4             | 96.5             | 96.6             | 96.7              |
|------|-------------------|-------------------|-------------------|------------------|------------------|------------------|-------------------|
| 민간부문 | 89,482<br>(-2.2)  | 84,838<br>(-5.2)  | 77,893<br>(-8.2)  | 78,922<br>(1.5)  | 80,111<br>(1.5)  | 81,870<br>(2.2)  | 80,284<br>(-1.9)  |
| 공공부문 | 55,591<br>(-8.7)  | 50,548<br>(-9.1)  | 47,755<br>(-5.3)  | 45,274<br>(2.3)  | 46,301<br>(2.3)  | 48,659<br>(5.1)  | 47,253<br>(-2.9)  |
| 계    | 145,073<br>(-4.8) | 135,876<br>(-6.7) | 125,648<br>(-7.5) | 124,196<br>(1.8) | 126,412<br>(1.8) | 130,529<br>(3.3) | 127,537<br>(-2.3) |

자료) 주택은행 『주택금융』 참조.

주) ( )는 전월비임.

[표9] 1996년 지역별 레미콘 출하 전망  
(단위 : m<sup>3</sup>, %)

| 지역    | 상반기                 | 하반기                 | 년 계                  |
|-------|---------------------|---------------------|----------------------|
| 서울·경인 | 21,404,709<br>(4.3) | 23,013,035<br>(3.6) | 44,417,744<br>(3.9)  |
| 강원    | 2,482,388<br>(5.9)  | 3,196,686<br>(5.5)  | 5,679,074<br>(5.7)   |
| 충북    | 2,547,150<br>(1.4)  | 2,976,082<br>(4.3)  | 5,523,232<br>(3.0)   |
| 대전·충남 | 5,236,465<br>(6.9)  | 5,811,266<br>(6.7)  | 11,047,731<br>(6.0)  |
| 전북    | 2,631,017<br>(1.7)  | 2,735,034<br>(1.9)  | 5,366,051<br>(1.8)   |
| 광주·전남 | 5,155,755<br>(3.3)  | 5,365,265<br>(4.0)  | 10,521,020<br>(3.6)  |
| 대구·경북 | 7,252,432<br>(-1.1) | 8,217,339<br>(2.3)  | 15,469,771<br>(0.6)  |
| 부산·경남 | 9,330,730<br>(4.3)  | 9,952,226<br>(4.5)  | 19,282,956<br>(4.4)  |
| 제주    | 676,084<br>(-9.5)   | 752,369<br>(-9.0)   | 1,428,453<br>(-9.2)  |
| 합계    | 56,716,730<br>(3.3) | 62,019,302<br>(3.6) | 118,736,032<br>(3.4) |

자료) 1. 상반기는 실적치 임.  
2. 하반기와 년간 실적은 추정치 임.  
3. ( )는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임.

1997년도 레미콘 수요는 1억2천311만m<sup>3</sup>가 출하되어 1996년대비 3.7%내외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표.10 참조]

내년도에는 SOC부문에서 꾸준히 레미콘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미분양주택의 적체가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경기불황의 영향으로 기업들의 신규투자도 줄어들 것으로

[표10] 1997년 지역별 레미콘 출하 전망  
(단위 : m<sup>3</sup>, %)

| 지역    | 상반기                 | 하반기                 | 년 계                  |
|-------|---------------------|---------------------|----------------------|
| 서울·경인 | 21,939,826<br>(2.5) | 23,726,439<br>(3.1) | 45,666,265<br>(2.8)  |
| 강원    | 2,497,282<br>(0.6)  | 3,340,537<br>(4.5)  | 5,837,819<br>(2.8)   |
| 충북    | 2,628,659<br>(3.2)  | 3,112,235<br>(3.0)  | 5,740,894<br>(3.1)   |
| 대전·충남 | 5,440,687<br>(3.9)  | 6,125,074<br>(5.4)  | 11,565,761<br>(4.6)  |
| 전북    | 2,736,257<br>(4.0)  | 2,822,555<br>(3.2)  | 5,558,812<br>(3.6)   |
| 광주·전남 | 5,423,854<br>(5.2)  | 5,697,911<br>(6.2)  | 11,121,765<br>(5.7)  |
| 대구·경북 | 7,433,743<br>(2.5)  | 8,682,823<br>(3.5)  | 16,116,566<br>(3.0)  |
| 부산·경남 | 9,750,612<br>(4.5)  | 10,330,411<br>(3.8) | 20,081,023<br>(4.1)  |
| 제주    | 677,436<br>(0.2)    | 753,121<br>(0.1)    | 1,430,557<br>(0.1)   |
| 합계    | 58,528,356<br>(3.2) | 64,591,106<br>(4.1) | 123,119,462<br>(3.7) |

주) ( )는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임.

로 보여 상반기는 레미콘 수요가 정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대선의 영향으로 지역 숙원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상반기보다 다소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지역이 지하철공사의 착공으로 1996년보다 5.7%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서울·경인지역은 2.8%증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